

“섬 생활 힘들어” 공무원 근무 기피 현상 갈수록 심화

섬진흥원 12개 시·군 조사...문화·여가생활 못하고 숙소 열악 호소 신규 공무원들 이탈 찾고 근무기간도 줄어...근무 여건 개선 등 필요

최성은(49)씨는 지난 2011년 3년 6개월 동안 신안 흑산도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시기를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로 꼽았다. 당시 일반 사무직 공무원으로 민원을 담당했지만, 이 시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지출이 컸지만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둘째 딸이 6살이 되던 해 섬으로 발령났고 맞벌이하는 아내와 떨어져 ‘기러기 아빠’로 살아야 했다”면서 “매주 가족을 보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해 승용차를 쓰는 비용(양복 6만 원)까지 매일 30여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가 생활은커녕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문씨는 “안도 본 섬의 군청 등지에는 구내식당이 있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동네 식당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기 때문에 밥을 챙겨먹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식당도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슈퍼에서 컵라면,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기 일췌라는 것이 문씨의 설명이다.

문씨는 “섬 지역 발령은 대부분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젊은 공무원들이 발령과 동시에 섬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해 이탈이 잦다”고 말했다.

전남 섬 지역 공무원들의 섬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남유(45)씨도 완도군 금당, 생일, 소안, 보길 등을 돌며 4년 5개월 동안 근무했던 시기를

섬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질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악순환이다. 결국 이는 섬지역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21일 'KIDI 한국섬진흥원(진흥원)'이 자체 조사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섬 지역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섬지역에 근무하는 전남지역 공무원들은 모두 469명으로, 22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목포·여수·영광·무안·신안·완도·진도·강진·장흥·해남·고흥·보성) 소속이다.

진흥원이 신안군 공무원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지난 2008년에는 66%에서 2013년 68%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45%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년 미만 근무자 비율은 2009년 29%, 2013년 1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5%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섬 지역에 신규 합격자

또는 신규 전입자를 강제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지역 근무 기피 이유는 업무를 비롯해 경제적 이유, 생활적 이유, 자녀 교육 등 다양하게 꼽히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는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은 수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섬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벽지 수당으로 매달 최대 6만 원(최소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당 규정이 만들어진 2004년부터 현재까지 52%에 달하는 물가상승이 있었지만, 수당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섬 지역 공무원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가 열악한 것도 기피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문씨는 “숙소 대부분이 조립식 패널로 지어져서 습하고 춥다”며 “여름에는 습해서 오전 9시에 제습

기를 틀면 두 시간 만에 물이 가득 차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이중으로 텐트를 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진흥원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 현안으로 꼽았다. 섬기후 특성 등으로 관사가 열악하며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섬 지역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섬 근무를 유인할 수 없거나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된 가정제를 조려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팀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섬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최일선에 있는 섬 지역 공무원의 주거여건과 근로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주거여건 측면에서는 관사의 개선과 교통비 지원, 근로여건 측면에서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휴가제도의 운용, 섬 근무 인센티브로서 인사제도 개선과 수당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사건 브로커’ 수사 중인 광주지검 경찰간부 가족 운영업체 압수수색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지 경찰간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브로커 A(62)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 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가 광주경찰청 소속 B경정의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 의류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수사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 북부경찰서, 첨단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광주시 서구에 있는 골프 의류점에도 사건브로커의 구매내역을 요구했다.

검찰이 B경정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주목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광주경찰청에 C경감에 대

해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해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C경감의 혐의가 인사청탁 비리로 알려졌고, C경감이 승진할 당시 담당 부서과장인 B경정이었다.

검찰은 A씨의 의류 구매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A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에 대해 B경정은 “일정 기간 전체 소비자의 구매내역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사건브로커 A씨가 구매한 내역만 제출했으며 압수수색이라기 보다는 자료제출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알고는 있지만, (나는) A씨의 골프모임 회원도 아니고 수사나 인사에 대해서는 A씨와 이야기조차 나누 본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김치 나눠요”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와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21일 광주김치타운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적십자사 희망봉사 결연세대와 취약계층 460여 가구에 전달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000억대 범죄수익금 세탁 일당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대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0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범 6명은 인터넷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을 차리고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자금 1136억여원을 쟁점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경제사이드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고 택배로 물품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가장계좌 4000여개와 대표통장 1055개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아파트와 호텔 등을 임대해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자백을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범행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만여명 중 상습 도박을 한 이용자에 대한 입건 여부와 도박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을 검토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병원 교수가 전공의 상습 폭행 ‘의혹’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징계 절차

조선대병원의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2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A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 사실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교원수련위원회를 열어 폭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밤 10시 1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자신을 조선대병원 전공의 4년차라고 밝히고 담당 지도교수 A씨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따로 불려가 쇠파이프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고,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는 등 폭행당했다’며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도 적었다.

글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시대에 동떨어진 개탄스러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후배 전공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과 더불어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글에 첨부된 영상과 녹취 파일에는 A씨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이라는 등 목소리와 병원 복도에서 다른 의사의 뺨과 어깨를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조선대병원은 A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A교수에 대해서는 피해 전공의와 접촉·통화를 금지시킨 데 더불어 교원 징계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술감담회 등 모든 회의 참석 금지, 기존 예약된 외래 진료를 제외한 모든 수술 행위 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조선대병원은 조선대 ‘인권성평등센터’와 연계해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